

94. 11. 10

인신매매 5명 영장 현직교사포함 충격

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술집에 팔아넘긴 중학교 사회교사 조영웅(27·대전시 서구 도마1동)씨와 성인호(27·술집종업원·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)씨, 백운용(26·회사원·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)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은 또 이 여학생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장안구 신평동 스카페 주인 오재원(32·여)씨와 팔달구 인계동 포나이트 클럽 전무 이명관(57)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군복무 당시인 지난 92년 12월 중순께 휴가를 나와 고교동창인 성씨와 함께 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 앞 공원에서 만난 이아무개(16·당시 대전중3)양을 “술 한잔 사주겠냐”며 포장마차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같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대전 / 하석 기자